

역전의 명수 KIA... 달라진 뒷심으로 두산 잡는다



브룩스



안방에서 주말 3연전... 시즌 1승 5패 열세 만회 나서 홍상삼·정해영 등 '깜짝 활약'에 중심타자 한방 기대 한달여 만의 대결... 두산에 첫 패배 브룩스 설욕 다짐

역전의 명수가 된 '호랑이 군단'이 두산전 열세 만회에 도전한다. 대구 원정을 다녀온 KIA타이거즈가 17일부터 안방에서 두산베어스와 주말 3연전을 벌인다. '설욕'이 이번 시리즈의 키워드다. 올 시즌 KIA는 두산과 6번 만나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다. 5월 15일 시즌 첫 대결에서 4-13으로 패했던 KIA는 2차전에서 점수를 뒤집어 13-4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승리다. 이후 4연패 중이다. 특히 앞선 두 경기는 1점 차 역전패였다. 전상현의 유일한 불투세이브와 홍상삼의 패배가 남았던 1점의 승부였다. 6월 7일 잠실 원정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두 팀. KIA는 앞선 패배의 설욕을 준비하고 있다. 앞선 대결과 달리 KIA의 뒷심이 좋아졌다. KIA는 15일 경기까지 32승을 거두는 동안 19차례 승부를 뒤집으면서 가장 많은 역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특별한 뒤집기소 등을 선보이면서 '역전의 명수'가 됐다. 지난 10일 KIA는 역전극의 단골손님인 키움을 상대로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박준표의 시즌 첫 피홈런과 함께 8회 8-8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던 이날, '고졸 루키' 정해영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역전의 판을 깔아줬다. 그리고 최원준이 눈물의 끝내기 안타를 장식하면서 주인공이 됐다.

15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올 시즌 명승부 중 하나로 남은 역전승이 기록됐다. 2-2로 맞선 9회 2사 1·3루에서 최형우가 주인공이 됐다. 세월이 흘러 '적'으로 다시 만난 삼성 오승환과의 첫 만남. 최형우는 3구째 직구를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팀에 승리를, 오승환에게 불륜 세이브를 안겨줬다. 문경찬의 이탈 속에서도 박준표, 전상현이 뒷문을 잘 버텨주고 있고 홍상삼·정해영 등 예상하지 않았던 자원들의 '깜짝 활약'까지 이어지면서 KIA의 끝까지 가는 승부가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중심 타자들을 중심으로 한 '한방'도 이어지면서 KIA가 7월 '역전의 명수'로 자리매김했다. 달라진 뒷심과 홈런의 힘으로 두산을 기다리고 있는 KIA, 브룩스에게도 기다리던 설욕무대다. 브룩스는 5월 17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KBO리그 첫 패를 기록했다. 좌타자가 포진한 두산 타선에 5.1이닝 11피안타 7탈삼진 5실점(4자책점)을 하면서, 올 시즌 가장 좋지 않은 기록이 남았다. 투-타의 엇박자로 번번이 승리를 날렸던 브룩스는 앞선 등판에서는 분위기 반전도 이뤘다. 브룩스는 11일 키움전에서 1회부터 4점을 뺏아준 타선의 지원 속에 한 달 만에 시즌 5승에 성공했다. 불운을 털어내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브룩스가 설욕에 성공하며 두산전 열세 만회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광주 유니폼' 입고 코로나19 극복 지원

KIA타이거즈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광주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 유니폼' (사진)을 입는다. KIA가 오는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특별 제작한 '광주 유니폼'을 입고 뛴다.



KIA는 시즌 초 광주 연고팀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지역 밀착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유니폼을 제작했다. 흰바탕에 광주의 영문인 'GWANGJU'가 감청색으로 수놓아져 있고, 노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다. 감청색과 노란색은 광주시의 상징색이다. 모자에도 감청색 T 로고와 노란색의 테두리가 들어갔다. 유니폼 어깨와 모자 옆에는 광주 지형도 바탕에 랜드마크인 무등산 서석대와 챔피언스 필드 이미지를 조합해 만든 엠블럼을 부착했다. KIA 관계자는 "광주지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광주시민과 팬 여러분께 힘이 되고자 광주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면서 "시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실천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도쿄올림픽 야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김경문

청소년 대표팀 감독은 김성용

김경문(사진) 감독이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도 야구 국가대표팀을 지휘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16일 2020년도 제13차 이사회에서 김 감독의 도쿄올림픽 감독 선임에 최종 승인했다. 협회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사령탑으로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공을 인정해 김 감독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야구 금메달을 이끌었다. 도쿄올림픽은 올해 8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협회는 오는 12월 20~26일 대만 가오슝에서 열



리는 제13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에 야망과 김성용 감독을 선임했다. 이 대회는 9월 6~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됐다. 한편 WBSC는 오는 9월 멕시코 시우다드 오브레곤에서 개최하려던 제3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23세 이하)를 내년 9월 24일~10월 3일로 미뤘다. 협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국제 대회 일정이 재조정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과 강화 훈련·과격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팀, 베를린 테니스 이벤트 대회 남자 단식 우승



도미니크 팀(오스트리아·오른쪽)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그라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잔디 코트 시범 경기 남자 단식 결승에서 마테오 베레티니(이탈리아)를 꺾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테니스 이벤트 대회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그라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잔디 코트 시범 경기 남자 단식 결승에서 마테오 베레티니(8위·이탈리아)를 2-1(6-7(4-7) 6-4 10-8)로 제압했다. 이 대회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황에서 이벤트 대회 형식으로 사흘간 진행됐다. 경기장은 약 5천석 규모지만 관중 입장은 약

800명 정도로 제한했다. 팬들은 입장할 때 속옷이 뿌러지는 기계를 통과하도록 했고, 체온 검사 후 일정 간격을 유지해 앉아야 했다. 또 선심을 두지 않고 전자 판독기로 경기를 진행했다. 여자부 결승전 엘리나 스비톨리나(5위·우크라이나)와 페트라 코비토바(12위·체코)의 경기는 비 때문에 하루 순연됐다. 17일부터는 베를린의 하드 코र्ट로 장소를 옮겨 사흘간 2차 이벤트 대회가 이어진다.

/연합뉴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150년 역사 첫 운동선수 후원

PGA 선수 캔들레이와 스폰서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창사 150년 만에 처음으로 운동선수와 후원 계약을 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16일 "골드만삭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패트릭 캔들레이(28·미국)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골드만삭스가 창사 150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운동선수 스폰서십"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는 이번에 나왔지만 지난해까지 타이틀리스트 모자를 썼던 캔들레이는 올해 초부터 모자 앞면에 '마커스 바이 골드만삭스'라는 문구를 새기고 대회에 출전 중이다. 캔들레이는 PGA 투어에서 통산 2승을 거뒀으며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지난해 PGA 챔피언십 공동 3위인 선수다. 골드만삭스의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는 더스틴 쿤은 "우리 상품과 서비스 이용객들이 스포츠, 특히 골프에 관심이 많다"며 "다만 이번 후원 계약은 스포츠라는 분야보다 캔들레이 개인 때문에 이뤄진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업의 잠재적 파트너를 평가할 때 파트너의 가치가 우리와 비슷하기를 바라는데 캔들레이가 그런 경우"라며 "파이낸셜 브랜드로서 마커스가 젊은 이미지가기 때문에 캔들레이도 그와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쿤은 "캔들레이의 투지 넘치는 특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됐다"며 "골프 코스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선수"라고 평가했다. 또 캔들레이가 골드만삭스의 상품에도 관심이 많은 점도 후원 계약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쿤은 "이번 후원 계약으로 인해 우리 브랜드의 목표인 고객들의 경제적 안정과 더 많은 관심을 향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세영·최운정 vs 코르다 자매 스크린 골프 대결

20일 '골프존 LPGA 스킨스 챌린지' 우승상금 5만달러...한·미 동시 진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세영(27)과 최운정(30)이 제사가 코르다, 벨리 코르다(이상 미국) 자매와 스크린 골프 실력을 겨룬다. 골프존은 16일 "LPGA 투어 챔피언들이 참가하는 '골프존 LPGA 스킨스 챌린지'를 20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20일 밤 8시 30분 대전의 골프존 조이마루와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루시의 팍

스트로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0일 오전 7시 30분이다. 골프존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스크린골프 대회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경기를 치른다. 올해 5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박인비(32), 유소연(30)과 라디아와(뉴질랜드), 페르날라 린드베리(스웨덴)의 스크린골프 경기가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우승 상금은 5만달러로 책정됐으며 전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골프존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 채널 라이브에서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반도
2관	반도, 답워터
3관	#살아있다, 비바리움, 맛있는 녀석들
4관	반도, 답워터
5관	반도
6관	반도
9관	반도
7관 씨네커머	밤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비바리움, 그레텔과 헨젤, 답워터
8관 씨네커머	#살아있다, 결백, 소리꾼,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주원의 방랑예찬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4 2020. 7. 22.(수)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자람(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오일바람 광주시립발레단 수시공연 창작발레 오일바람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동화음악회 GAC기획공연 - FOCUS V 동화음악회 - 책으로 똥을 뚫는 돼지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	---	---	--